

5·18 기억하는 문화공간서 ‘오월정신’ 예술로 되새기다

ACC 18~27일 오월문화주간 운영
연극·마당극·노래·어린이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참여 프로그램

옛 전남도청이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18~27일 열흘 동안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참여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열리는 ACC ‘오월문화주간’ 행사다.

‘오월문화주간’의 문을 여는 공연은 1980년 5월 광주를 재현한 관객 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1980년 격정적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끈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의 중요 역할을 참여하며 그날의 현장을 극적으로 경험한다. 이번 공연은 15~18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관객들의 공연 관람을 돕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자 공연 관람과 함께 5·18역사기행이 포함된 ‘메모리얼 투어’ 프로그램을 15~16일과 17~18일 두 차례 운영한다.

8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열린다. ‘꽃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ACC 제공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

ACC 제공

잠’은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전쟁 속 무너져버린 일상을 피해 깊은 잠에 빠져든 소녀 마리의 이야기다. 24~25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동질적인 경험과 기억을 내재한 전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도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가 24~25일 ACC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24일에는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마당극이 5·18민주화운동



‘오월 어머니의 노래’.

ACC 제공

을 주제로 열리며, 이어 25일에는 극단 세이레가 제주 4·3을 주제로 한 ‘오사카에서 온 편지’ 연극을 펼쳐 시대의 어둠을 문화로 새롭게 기억한다.

24일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오월 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이 희생된 오월어머니들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공연이다. 오월어머니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든 공연으로, 지난 202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 국민과 오월의 가치를 나누고 있

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해씨가 참여해 오월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이 보다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세계화를 위해 광주공연을 비롯해 일본 오사카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ACC 민주·인권·평화 솜품 영상 공모전’,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오월이야기 퍼즐’,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 등 풍성한 체험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이 가족단위 관람객

을 맞는다. ‘오월문화주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역사 속 아픔의 기록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면서 “옛 전남도청이 있는 ACC 일원이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교류의 장이자 미래를 이끄는 문화의 공간으로 옷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광남배 수묵화 ‘모정’ 보존처리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 선정
남종화 전통 계승 작품 보존 의미

전남도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2024년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에 선정돼 주요 소장품의 보존 기회를 얻었다. 보존 작업을 진행하게 될 대상은 전남 전통 화풍 남종화인 광남배 작가(1929~2004)의 ‘모정’이다.

12일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은 국내 공사립미술관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의 보존 처리 및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중요 문화자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8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립미술관이 포함돼 주요 소장품의 보존 기회를 얻게 됐다.

‘모정’은 호남 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조화롭게 구현해 낸 광남배 작가의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작이다. 작가의 깊은 역량과 예술적 정수가 집약된 작품이며 전통 남종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성적인 필치와 독창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작가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21년 실시된 상태 조사 결과, ‘모정’은 작품지의 황변(yellowing), 찢김(tearing), 긁힘(scratching), 울음(buckling) 등의 손상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전남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최진화 기자

한땀한땀 이어 만든 조각보로 마음 다독여줘

비움박물관 5·18 특별전시
‘평화의 조각보 모아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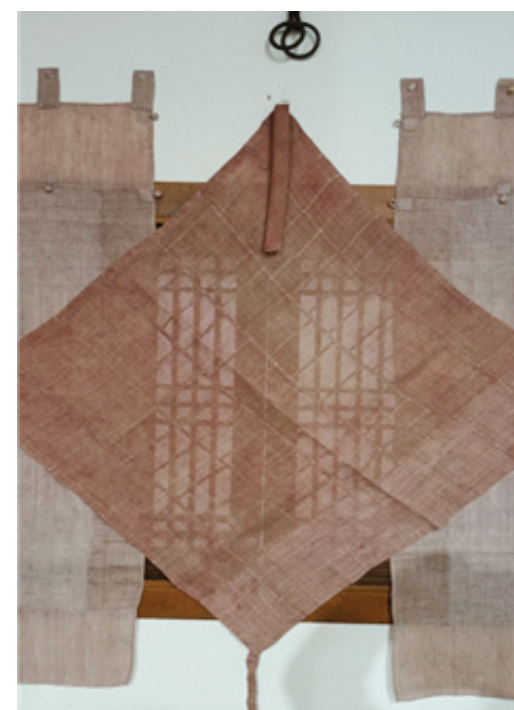
보자기, 밥상보, 이불보, 가리개 등 작은 천으로 하나하나 이은 조각보로 만든 생활용품. 어머니들이 손바느질로 만든 조각보는 그 자체가 화합이고 평화이며 어지러운 시국에 지치고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에 충분하다. 다채로운 옛날 조각보 작품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조각보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화제다.

비움박물관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평화의 조각보 모아보자 모아보자 모아보자’ 전시를 마련했다. 주요 전시품은 옛날

어머니들이 만든 조각보 생활용품들이다.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다 수많은 작은 천으로 하나하나 이어진 조각보를 떠올렸다. 세상 부지런한 옛 어머니들이 오디, 치자, 쪽풀로 염색한 조각 천들을 모아 이리저리 이어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영화 관장이 민속품을 수집하며 천연 재료로 손수 염색한 수백 점의 조각보 작품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동구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조각보 손가방 만들기’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박물관(062-222-6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시는 31일까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비움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조각보

TuiiBot

이제 튀김은 튀봇에게 맡기세요

1시간당 치킨 36마리

튀김로봇

직접 체험하고 선택하세요!

LG전자

공식인증점 (주)태등

062-383-5800

홈페이지 접속가능 www.lgtd.kr